

## News

### 홍남기 "규제지역 지정따른 중도금·잔금 대출한도 축소 보완"

연합뉴스

홍 부총리는 "...(6.17 대책 이전)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" 이는 6·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사실상 확대되면서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겪는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

### 중금리대출, 시중銀 줄이고 지방銀 취급 활성화

파이낸셜뉴스

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월 전체 신용대출 중 중금리대출(연 5~10%)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7.14%...전년 동월 평균 비중인 15.5%에 비해 2배 이상 감소 반면,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주요 지방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여전히 상당해...5월 전체 신용대출 중 지방은행의 중금리대출 평균 비중은 26%...

### 오픈뱅킹 가입자 2000만명 돌파..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 사용

연합뉴스

오픈뱅킹 가입자가 출시 6개월만에 4,000만명을 넘어서...중복 가입자 제외하면 2,032만명...현재 은행권에 적용중인 오픈뱅킹은 연내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사 등으로 확대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는 6월 기준 1억9,000만건(일평균 659만건)으로 누적 10억5,000만건...잔액조회(84.5%), 핀테크기업은 출금이체(82.5%) 이용이 가장 빈번

### 사모펀드 못 파는 은행들...보험판매 대폭 늘렸다

이데일리

6월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1조8,527억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24.1% 증가... 5대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지난달 말 기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311억원으로 집계...이는 전년 동기 16.7% 증가하고, 직전 달과 대비해서는 32%가 늘어난 수치

### 코로나도 보험 재해보장 대상...전동휠 이용 시 보험사에 알려야

연합뉴스

금감원,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...코로나19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...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 전동휠·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·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,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

### '이중과세·펀드 역차별' 실마리 찾는다...오늘 금융세제 공청회

뉴시스

공청회에서는 증권거래세·양도소득세 '이중과세' 논란, 국내 주식 펀드 '역차별' 문제,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약 30만명 양도세·증권거래세 부담...정부 "이중과세 아냐"...주식형 펀드, 기본세제 없어..."간접투자 감소 초래 가능성"...매월 원정징수, 투자위축 우려...반기 등 기한 늘릴 수도

### 사모펀드 전수조사 앞둔 금융당국, 조치명령권 행사 채비

연합뉴스

금융위,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'영업 정지' 등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마련...조치명령권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이 또 다른 문제 업체들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

### 아시아나 인수자금은 못대줘...HDC회사채, 기관외면에 미달

매일경제

HDC현대산업개발이 3,0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달을 기록...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외면했기 때문 신용등급 `A`인 건설업이란 점도 부정적 영향...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1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하는 데 그쳐...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